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에게 묻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며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전하고픈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 나라.
오늘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Q1. 하나님 나라... 쉽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나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구속은 새로운 삶의 질서요 소명이며 바른 비전의 회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구속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구속도 선물인 동시에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실천해야 할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긴 회복되어야 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인 복음의 빛이 세상에 비취었습니다. 천지창조 이래 중단되었던 하나님 나라 건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일에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남녀 그리스도인 모두 하나님 나라 재건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은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은 성도들을 세상에서 뽑아 교회로 불러 모으시지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전초기지요 훈련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흠여짐을 전제로 합니다. 모여서 힘을 얻고 세상 속의 누룩과 빛으로 흠여졌다가 다시 모이기를 반복하며, 삶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복음의 진정한 성취는 어둠 속의 세계가 점차 복음의 빛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죽음과 폭력의 원리가 조그맣게 생명과 살롬의 원리로 바뀌어져 갑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일하는 살롬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노라면 해변으로 휴가 가는 것이 낯것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혁명가들은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얼마나 생생하게 꾸며내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상상력은 너무도 메말라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무기력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민주화나 통일의 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즉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신약과 초대교회 문헌에서는 이 두 단어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천국은 불교에서 생각하는 극락 같은 곳이거나, 하늘 저 너머 우주 한 모퉁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실행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속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에 임합니다. 개인의 거듭난 마음과 몸이 그런 곳일 수 있고, 가정과 직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곳이고요. 학문과 예술과 정치와 경제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엔 그 나라가 온 우주에 영원토록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일해야 합니다. “내일 재림이 있을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에 임합니다.



Q2. '하나님 나라' 하면 꼭 저 하늘 위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언제 임하나요?

온 우주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 한 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그 나라는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방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국토나 국민은 그대로지만 국권만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잠시 지도와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일등을 했지만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올라간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광복을 통해 회복된 것은 국토나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국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회

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그것을 지역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거나 이 세상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것도 아니지요. 천국을 마음속에만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나치게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 또한 큰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왕권의 범위를 마음속이나 교회 울타리 안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회복의 목표도 전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시기를 두고 조바심을 냈던 것은 옛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992년 10월의 재림 소문은 일반 언론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날 어떤 이들은 흰옷을 입고 모여 재림을 기다렸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다리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은 자신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므로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영원을 향하게 하는 열린 안목을 주기 때문입니다. 천국 비전은 죽음에 임박해서만 힘이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며 사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결코 무기력할 수 없지요. 비현실적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보다 훨씬 힘차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삽니다.

Q3. 매일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삶!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네요!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이 세상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권세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속에 "그분의 발판을 세운 것"일 뿐이지요. 물론 그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not yet)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임한 나라와 아직도 기다려야 할 소망 사이에서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그 나라의 권세를 누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이중 구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도 잘못되고 삶도 왜곡되기 쉽습니다. 이미 임한 나라만 강조하면 현세적이 되지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는 생각에 자칫 혁명적인 자세를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기다려야 하는 나라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내세적이고 비현실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이 세상은 오로지 대기소에 불과한 곳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상에 있으나 아직 소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크고 또 영원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임할 때까지만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엔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우신 기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점점 축소될 수도 있다면 역설입니다. 만일 교회가 능력과 자원을 스스로를 유지하는 데에만 사용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진정한 방법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선교와 일상 속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도자와 일꾼을 보낼 때 교회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사와 일꾼을 기르는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를 위해 일하고 싸우다가 피박 받고 상한 심령들이 쉬면서 치유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높여 세상으로부터 피신할 은신처나 계도는 아닙니다. 사령부나 훈련소 방어가 유일한 전투라면 이미 진 전쟁입니다. 반면 전선이 훈련소나 본부에서 멀수록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신자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의 빛을 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Q4.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도하는 문고리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미국의 대중문화는 군사력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미국적 가치와 생활 방식을 온 세상에 퍼트리고 있지요. 세계인의 입맛, 유행하는 의상, 심지어 성생활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고, 미국 영화와 음악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침략을 감행해야만 주권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근래에는 우리나라도 한류를 통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비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이와 흡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지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불신 세계를 뚫고 들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요, 의며 평강의 힘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불신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복음전도에는 사회와 문화의 변혁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심령이나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진리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는 이해하셨기 바랍니다. 구속의 진리라는 렌즈로 본 세상은 더 이상 헛됨으로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그 눈에는 천국의 비전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진정하고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비전을 열어줍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 (이상 NP) 등이 있다.

2013년 한 해동안 연재되었던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은 12월호를 끝으로 마칩니다. 그간 섬겨주신 신국원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